

군산근대박물관, 연간 100만 관광객 넘본다

올해 상반기 47만5100명...전년 동기보다 30% 증가

역사박물관·철길마을·3·1운동기념관 등 연계 관광 주요

50여개 체험 스탬프투어·철새조망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 호응

지역의 근대 문화와 해양 문화를 중심으로 건립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근대박물관)이 연간 100만명이 찾는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근대박물관 방문객이 47만51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세를 보이며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했다.

◇금강권 전시장과 함께 비상을 꿈꾸는 근대박물관=올해 초 박물관은 금강권 전시관을 통합해 운영하면서 지역 관광의 동력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금강권의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전시관이 박물관과 연계를 통해 군산의 대표 관광권역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금강권 관광은 박물관 벨트화 지역을 출발해 경암동 철길마을, 3·1운동기념관, 채만식 문학관, 금강 철새조망대까지의 선순환 관광을 하는 방식으로 도보로 2시간, 자전거로 30분, 차량으로 15분이 소요된다.

시는 관람시간을 포함하면 최소 반나절이 소요돼 원도심 근대문화와 연계하면 1박2일 체험형 관광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근대박물관의 예상 입장객 100만명 가운데 20~30%인 20~30만명을 금강권 전시장으로 유도해 체험형 관광의 기본틀이 구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체험중심의 다양한 시도들 '호응'=근대박물관은 체험중심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역사상을 바탕으로 흥미롭고 추억이 될 수 있는 50여개의 체험을 새롭게 갖추고, 스토리텔링 체험후 선물을 가지고 다른 전시장으로 이동 최종 미션을 완성하게 하는 '스탬프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철새조망대에서는 어린이와 방문객들의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계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근대박물관=10년이 채 안 되는 시간동안 굵직굵직한 이력을 남기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만의 특별함은 바로 '시민과 함께한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유물을 포함한 2만 7000여 점의 방대한 유물은 바로 시민이 만들어가는 박물관이라는 역동성을 부여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어린이날 연휴(5월 4~6일) 동안 박물관 1층에서 미술공연을 진행했다. <군산시 제공>

또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1년에 20여회의 전시와 300여회의 문화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복합 공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민자원봉사자 100여명이 근대해설사, 인형극, 민속놀이 등을 함께 함으로써 시민이 함께 만드는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박물관은 다양한 테마의 전시와 야간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불 꺼진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소와 군산

에 체류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박물관 벨트화 지역 내에서는 야간개장(오후 6시~오후 9시 무료관람)을 함으로써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야간관광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전국 최고의 근대문화 유산을 지닌 강점을 살려 근대역사박물관을 거점으로 금강권·새만금·고군산군도 등 관광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진도에 최첨단시설 갖춘 대규모 리조트 개장

대명그룹, 2106억 들여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완공

진도에 최신식 시설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가 19일 문을 열었다.<사진> 2017년 진도군의 적극적 투자유치와 함께 수려한 해양 경관을 배경으로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가 공사를 시작, 2년 만에 1단계 공사를 완료했다.

576실 규모의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으로 진도는 전남 서남해안 체험형 관광·휴양 최적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리조트 기업인 대명그룹은 2106억원을 투입, 타워콘도와 관광비치 호텔 등을 갖췄다.

앞으로 3508억원을 들여 이신면 초사리 일대 55만8765㎡ 부지에 콘도와 호텔, 오션빌리지, 마운틴콘도 등 총 1007개 객실과 부대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1단계인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4단계로 나눠 완공 예정이다.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타워콘도, 비치호텔, 오션빌리지 등 사계절 체험형 관광리조트 성격으로 조성됐다.

전체 인력의 80%가량인 150여명이 진도군에 거주하는 인력으로 채용됐다.

쌀과 전복 등 진도 농수특산물이 식재료로 고정 납품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진도군은 연간 100만여명의 관광객 방문을 앞두고 진도여행 안내소 건립, 안내판·주요 도로 정비, 진도항-관매도 여객선 직항노선 운항, 울돌목 주말장터 개장, 오거리 페스타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즐거거리·체험거리를 준비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보성군, '흙살리기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

올 2억 투입 농지 30만여평 토양개량제 활용 상품성 높여

보성군이 '흙 살리기' 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2억원 예산을 투입해 30만여평 규모 농지에 양질의 토양개량제를 활용, 흙 살리기 사업을 펼친다.

염류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농가 소득이 줄어든데 따른 대책으로 시행되는 흙 살리기 사업에는 보성농협과 벌교농협 등 지역 단위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군이 진행하는 토양개량제를 이용한 흙 살리기 사업은 염류류와 과잉된 작물의 뿌리발육과 비타민 및 각종 아미노산 합성을 촉진, 상품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올해 상반기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 160여 농가, 47ha 15만 여평 농지에 흙 살리기 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보성농협 벌교농협과 손 잡고 오이와 방울토마토 등 시설 농가와 노지 농지를 대상으로 흙 살리기 사업을 벌인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작물의 연작 피해를 줄이는 한편 토지의 특성물질, 중금속 문제를 해결, 생산량 증가 및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성군 조성면 참다래 농가 협회 양택만 회장은 "염류로 인한 연작 피해로 시름이 깊었다"며 "이번 사업에 대한 회원 농가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남원시, 피서객 안전 종합대책 마련

남원시가 여름철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산내면 사무소에서 '여름철 피서객 맞이 종합대책 회의'를 갖고 피서객들의 안전사고 예방방안과 부서별 업무 등을 논의·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주재로 공무원과 유관기관, 산내면 이장단(18명) 등 27명이 참여했다.<사진>

회의에서는 물놀이 및 다슬기 채취 안전수칙 지키기와 뱀사골 허드렛돌 사용 줄이기,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 안하기 등 피서

객을 맞이 위한 부서별 소관업무를 소개·점검했다.

또 시는 부서별 행동수칙과 협조사항을 전달하는 등 남원을 찾은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일부터 요천, 뱀사골 계곡 등 물놀이객이 집중되는 12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했다. 이곳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35명을 배치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슬로건 선정

고창군이 여성친화도시 슬로건으로 '미래의 행복을 이끌어갈 여성친화도시 고창'을 선정했다.

고창군은 동리국악당에서 진행된 2019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슬로건을 발표했다.<사진>

슬로건으로 밝힌 '미래의 행복을 이끌어갈 여성친화도시 고창'은 주민과 공무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미래지

향적인 도시 이미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촉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매화라이온스 최순옥 회장 등 28명)이 수여됐다.

이날 조혜경(성인지정책연구소 모던) 박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강연을 진행했다.

또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고창 정보리발 축제 기간 중 얻은 수익금(200만원)을 고창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

/고창=김형주 기자 khj@

oticon PEOPLE FIRST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

1566-9988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